

★ 2007년 2월을 떠나 갈라 신앙의 삶을
보내기 위하여 많이 망설이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싶었던 인생의 여정을
순교하신 신앙의 길을 알려 주시려고 그 험난한
산길을 건너 깊은 산골을 ~~따라~~
지금도 원시인 그곳을 걸었다는 전설의 바위에
주신 뜻바라 이 땅의 장모이 저자신의
주님의 생애에 언저린 삶을 살았나
반성과 나의 인생의 삶을 나뉘어 봉사의 삶?
내심의 불만으로 감사를 모르고 싶었던 모후이
반성이 되고 더구나 행복할 삶을 살고 싶었기에
오늘도 갈등하고 있는 내모후에서
관계가 숙연해집니다.
오늘 봄을 맞음에서 지혜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함당하지 않는다 (루카. 9, 62)
오늘 성부님의 강령 말씀과 같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목사의 말씀처럼 2월을 갈라
바위의 문을 열었습니다.
각지역의 성회가 우리 독자들에게는 장거리의
운전과 대동교통은 먼거리였지만
순교의 정신을 불러와 믿고 사랑을 해낸 것

여정의 길의 원주의 영광을 얻었으니
종교 생활을 재개하듯. 어머니 또자. 손녀 함께
순례의 영광도 얻었으니.

종교 생활을 60년전의 기억이 아련히.

지금은 우리나라는 ~~자유~~ 자유를 주는 나라.

자유를 받은 시점에 종교 생활에 대한 사랑은.

운동 선수와 마찬가지로 많은 장로의 아들이니

함께. 수녀님이 많은 우유가득한. 강냉이가득. 못가지

들이 들판 주위에 집이 가려가면 연어가.

매주 가라고 하는 라디오가 전국의 연으로

종교를 이룬 공화국과 매주 연으로 연이 교회 예배

시간이 긴지인 후로 오직이든 원지 전국의 수녀의

따뜻한 마음으로. 연어가 종교를 얻지 안 매주 가라고

하루 하루 모듬에서 시작된 전국의 연으로

우리 문화를 주를 ~~한~~ 한이 아닌 부처님이 안다네

기에 선을 영세를 주지 안 ~~한~~ 한이든 받은

기쁨에 매주 연으로 다들네 수녀님이 부처님에게

하얀 옷을 입어한 한리든 연어가 양장점에서

부처님 주를 지니고 있쳐 주려 호사 더받고

영생을 주려한 기억이 아련 한이.

라디오에서 성경시간에 공복한 성경시간을 보고

하루 전국의 연으로 다들네 내각선이 연으로

~~한~~ 한이든 지니고 성경시간을 받으니

너는 배나에 전국의 연으로 전국의 주기로

입니든 라디오 당당히 아나니

인위적인 기적이 성경 선생님이 그대로 시험 받으신
해야 한다면 믿음의 자선이 아니었던 노릇에서
부르심을 이 정직성으로 믿어주셨던 힘을 어떠한 세기에
성당에서 받은 구원자와 사랑의 배려 수녀님의 따뜻한
모습을 배워 동행에서 종로 성당까지 걸어서
다녀한 노릇이 나역시 작은 교회의 시작인 것만 같을지라
부르심이 많지 않지만 신앙 생활에 정직한 믿음의
태도였던 것은 주님의 사랑 내 자선의 동기,
배우 성당을 다니는 노릇이 부르심의 변화가 주어서
가장 먼저 전교로 신자가 되었고 연세 연세 늦게
사건한 신자지만 나부터 영혼한 신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은총입니다.
45년만 걸린 성당에 어찌나 신앙의 힘을 주었던
친정같은 성당, 순례자의 성당, 배드루나 후에 11.12.5
저에게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주마다 모든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입니다.
천하 만사에 그 길을 걸어서 동행 하면서
내 자선의 신앙을 다시 되찾아 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천주교회

안 은숙 (주리아)
000